**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양서류・파충류**

개구리와 도롱뇽 등 대부분의 양서류는 물가에서 태어나 습한 숲에서 성장하고 산란을 위해 다시 물가로 돌아온다. 기쿠치 계곡처럼 두 환경이 공존하는 장소는 양서류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이며, 양서류를 먹이로 삼는 파충류도 모여든다. 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양서류・파충류를 소개한다.

**지쿠시부치 도롱뇽**(Hynobius oyamai)은 계곡 삼림의 지표면이나 맑게 흐르는 물에 서식한다. 낮에는 바위 그늘에 숨어 있고, 밤에만 나와서 먹이인 쥐며느리 등의 곤충을 찾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다. 성체는 몸길이 11~15센티미터이고 청회색을 띠고 있다. 4월부터 5월에 걸쳐 물속의 바위 그늘에 알을 낳는데, 유생이 여름에 작은 시냇물이나 웅덩이에서 헤엄쳐 수생 곤충을 잡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숲으로 이동하며 식성도 변화한다. 규슈 북동부에만 서식한다고 한다.

기쿠치 계곡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개구리는 흑갈색의 **다고 개구리**(Rana tagoi)다. 몸길이 5센티미터 정도로서 강변의 연못이나 웅덩이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진주 같은 흰색의 올챙이가 알 속의 영양분만을 먹고 성장하는데, 완전한 암흑을 필요로 하므로 다고 개구리는 지하에서 흐르는 물에 산란한다. 올챙이는 물에서 나오기 전에 성장하면서 서서히 색소가 발달한다. 몸길이가 18센티미터까지 자라는, 일본에서 가장 큰 개구리인 **서일본두꺼비**(Bufo japonicus)도 자주 보이는데 계곡 산책로의 웅덩이에서 검은 올챙이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기생개구리**(Buergeria buergeri)라고 하는, 높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특징적인 개구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기생개구리의 울음소리는 4월부터 7월의 번식기에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로서 일본 고유의 시가인 하이쿠에서도 초여름을 나타내는 말로써 사용된다.

낙엽이 퇴적된 습한 삼림 지표면에는 **일본얼룩배영원**(Cynops pyrrhogaster)과 **다카치호뱀**(Achalinus spinalis)이 서식하고 있다. 일본얼룩배영원은 도마뱀과 비슷한 작은 영원(도롱뇽의 일종)으로서 배에 빨간색과 검은색 무늬가 있다. 강 가까이의 웅덩이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무늬는 개체에 따라 다르며 영원의 수명인 최대 2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 빨간색은 독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색이지만, 이 영원의 독은 보통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다. 한편 짙은 회색의 다카치호뱀은 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좋아하여 주로 밤에 좋아하는 먹이인 지렁이를 찾아 돌아다닌다.